

보도시점 2024. 10. 2.(수) 15:30 배포 2024. 10. 2.(수) 08:00

6천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 10. 2.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콘텐츠·미디어 기업 6개사, 모펀드 운용사, 민관합동 펀드 조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씨제이이엔엠(CJ ENM),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등 콘텐츠·미디어 6개 기업, 모펀드 운용사인 (주)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총 11개 기관은 10월 2일(수), 조성목표 약 6천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인촌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IP)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힘 합쳐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를 비롯해 정책 및 산업 자문, 출자사업 진행 등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호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

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두 기관은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6개사는 콘텐츠·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해 동참했다.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감, 신속한 추진으로 기대에 부응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전략펀드’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른 시일 내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확보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콘텐츠 기업의 더욱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략펀드 모펀드 결성과 운용계획 수립('24년 10월), 자펀드 출자사업 공고('24년 11월), 자펀드 선정 및 결성('24년 12월)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시장 내 투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책임자	과장	진재영 (044-203-2581)
		담당자	사무관	채창렬 (044-203-2582)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항재 (044-202-6550)
		담당자	사무관	임창민 (044-202-6556)

